

# 패권전쟁과 돈의 미래

2026-01-22 · 박종훈의 지식한방 · part1\_04

미·중 패권전쟁은 양국 모두 작아진 파이를 약탈해야 생존하는 장기적 질식전(Long Suffocation)으로 진입했다. 효율의 종말 → 화폐의 무기화 → 화폐의 타락 → 잦은 전쟁의 4단 메커니즘이 동시에 작동하면서 종이금이 실물금으로 대전환되고, 트럼프 시대(부채 GDP 134%)는 레이건 시대(30%)와 달리 위기 없는 QE를 강제할 가능성이 커졌다. 달러는 동반 침몰의 최상층이지만, 한국 원화는 자본 유출·디커플링·M2·인구구조의 4중 취약 요인으로 더 빠르게 흔들린다.

## 01 핵심 골격

- 1 미·중 패권전쟁의 진짜 원인은 '작아진 파이' — 미국 성장률 1960s 4.4% → 2030s 전망 1.6%, 중국 1990s 10% → 2030s 2.5%로 둘 다 둔화. 작아진 파이는 약탈로만 채울 수 있어 미·소 냉전의 '관용의 전쟁'이 미·중의 '약탈의 전쟁'으로 바뀌었다.
- 2 장기적 질식전 4 특징의 동시 작동 — (1) 효율의 종말(공급망 차단 → 구조적 인플레이 → 화폐 가치 계단식 하락) (2) 화폐의 무기화(SWIFT → 탈달러 블록) (3) 화폐의 타락(AI·군비 질식 공포 → 천문학적 국채 + 의도적 통화 하락) (4) 잦은 전쟁(스페인 펠리페 2세 4번 파산 / 영국 1·2차 대전 / 미국 2천조국).
- 3 종이금에서 실물금으로의 대전환 — 우크라 전쟁 SWIFT 무기화 → 신흥국 외환보유고 미국 국채를 금으로 대체 → 2025 금의 대이동 (산지→영국→미국→신흥국). JP모건 \$920M 합의(2020) + 빅뱅크 4개 합의는 묵인 패턴 산업 전반 확장. 2026 Q1 BRICS+ 17.4% / 글로벌 1,231톤 / 가치 +74%로 가속.
- 4 레이건 시대(GDP 부채 30%) vs 트럼프 시대(120%, 실제 134%) — 레이건은 부채 여력으로 소련을 먼저 무너뜨렸지만, 트럼프는 위기 없는 QE를 강제당할 가능성이 크다. 평시 연준 국채 매입 시작 = 달러 신뢰 급락 + 실물자산 폭등의 핵심 예의주시 신호. 회차 시점 후 부채는 134%까지 더 악화 — 강의 메시지가 외부 데이터로 강화.

- 5 달러는 동반 침몰의 최상층 — 유로(우크라 전쟁 비용)·엔(고령화·국가부채)·위안(부동산 붕괴) 모두 더 큰 문제. '부자는 망해도 삼 년 산다'. 그러나 한국 원화는 자본 유출(매년 200억 달러)·디커플링·M2 증가·인구구조 4 취약 요인으로 일본보다 빠르게 흔들릴 위험.

## 02 최신 지표 보강 (2025 Q3 ~ 2026 Q1 기준 (WebSearch 자료 보강 — 회차 맞춤 4종, 강의 메시지에 새 시각 추가))

2026 Q1 BRICS+·글로벌 금 매수 (강의 § 6 후속 — 시간 연장)

**BRICS+ 보유 17.4% (2019 11.2% → +6.2%p) / 글로벌 1,231톤 (+2% YoY) / 가치 +74%**

강의 § 2025 금의 대이동 흐름이 2026 Q1에도 가속. 신흥국 중앙은행이 글로벌 매수의 95%를 차지하고, 95%가 매수 지속 의향 응답. J.P.Morgan 2026 전망 755톤. 회차의 '실물금 시대' 메시지가 시간 연장으로 강화.

출처 · gold.org

미국 부의 분포 격차 (2025 Q3 — 강의 § 스트롱맨 등장 각도 확장)

**상위 1% 자산 31.7% / \$55T ≈ 하위 90% 합 / WWII 이후 최고**

강의 § 스트롱맨 등장 배경(상위 20% 자산 가격만 동반 상승 vs 하위 80% 팍팍)의 정량 데이터. 1989 통계 시작 이래 최고 수준이며 Bloomberg 2026-01-21 'Postwar High'. 캔틸런 효과의 21세기 누적 결과를 외부 자료가 정량 확증.

출처 · federalreserve.gov

GDP 대비 미국 국가부채 (2026 — 강의 § 레이건 vs 트럼프 검증·반박)

**레이건 1980 26.2% / 1988 40.9% / 2026 134% (WWII 이후 최고)**

강의 비교(30% vs 120%)의 실제 데이터 검증 — 레이건 시점은 정합, 트럼프 시점은 회차 120%를 넘어 134% 도달. 위기 없는 QE 강제 시점이 회차가 우려한 것보다 더 가까이. COVID 정점 132.8%도 초과.

출처 · us-debt-clock.com

빅 은행 가짜금·시세조작 합의 (강의 § JP모건 사례 후속)

**JP모건 \$920M (2020) + Deutsche \$38M + Nova Scotia \$127.4M + Barclays £26M**

강의 § JP모건 시세 조작(2008-2016)의 그 후 — 단일 사건이 아니라 빅 은행 4개의 합의 패턴. JP모건은 역대 최대 시세 조작 합의 규모 도달. 2025년 추가 class action 진행 중. 회차의 '미국 정부가 단속하지 않는 이유 = 달러 패권 유지' 명제를 산업 전반의 묵인 패턴으로 강화.

출처 · sotosclassactions.com

### 03 한국 투자자 — 예의주시 신호 3가지

---

- 01 **중앙은행의 금 대이동 모니터링** — 2026 Q1 BRICS+ 17.4% / 글로벌 +74%의 가속이 회차 시점 후에도 지속 중. 종이금 → 실물금 흐름이 더 빨라지는지 매월 예의주시 (강의는 신중히 변화의 흐름에 올라타라고 권고).
  - 02 **동반 침몰 속 달러 위치 관찰** — 강의는 달러가 동반 침몰의 최상층 = 가장 늦게 무너진다고 짚었다. 유로·엔·위안의 위기 정도와 달러 상대 강세 흐름을 함께 관찰하면 통화 시장의 큰 그림이 보인다.
  - 03 **위기 없는 QE 트리거 예의주시** — 강의가 직접 가리킨 가장 명확한 시그널 (연준이 평시에 국채 매입을 시작하는 순간 = 달러 신뢰 급락 + 실물자산 폭등). 매월 연준 BS 변화 + 부채 134% 추가 악화 추이 모니터링.
- 

#### 웹 보강 출처 (Perplexity)

- <https://www.gold.org/goldhub/research/gold-demand-trends/gold-demand-trends-q1-2026/outlook>
  - <https://www.visualcapitalist.com/ranked-central-banks-buying-and-selling-gold-in-2026/>
  - <https://onlinegold.org/analysis/central-bank-gold-reserves-2026/>
  - <https://www.federalreserve.gov/releases/z1/dataviz/dfa/distribute/chart/>
  - <https://inequality.org/facts/wealth-inequality/>
  - <https://www.bloomberg.com/news/articles/2026-01-21/us-inequality-hits-postwar-high-as-wealth-of-the-richest-surges>
  - <https://www.us-debt-clock.com/debt-to-gdp>
  - <https://fred.stlouisfed.org/series/GFDEGDQ188S>
  - <https://www.sotosclassactions.com/cases/silver-price-manipulation/>
  - <https://auronum.co.uk/from-fix-to-fraud-silver-price-manipulation-by-ubs-and-deutsche-bank/>
- 

미·중 패권전쟁

장기적 질식전 (Long Suffocation)

작아진 파이 / 제로섬 게임

효율의 종말 / 구조적 인플레이션

화폐의 무기화 (SWIFT 러시아 퇴출)

탈달러화 (De-dollarization)

달러 블록 vs 탈달러 블록

종이금 → 실물금 대전환

Fanding @kpunch · part1\_04